

#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대·자·보 도시’ 첫걸음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市, 기존 광주공원 주차장→‘열린광장’으로 조성  
희경루·지뫼·양림동 등 연계 문화·먹거리 공존  
‘불법 포차’ 활성화에 예산·행정력 낭비 지적도

광주시가 ‘청춘 빛포차 광장’을 조성, 전면 개방했다. 광주시는 22일 남구 광주공원 주차장에서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차없는거리 주민, 상인회 대표, 대·자·보 시민실천단 등이 참석했다. ‘청춘 빛포차 광장’은 자동차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자·보 도시의 실현 방안 중 하나다. 광주공원, 희경루,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등 주변 문화 자원과 함께 양림동·동명동·서남동 등 원도심과 연결해 ‘걷고, 모이고, 머무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빛포차 광장을 통해 기후환경 편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대·자·보 도시 효과를 검증,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청춘 빛포차 거리’를 시작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차 없는 문화전당길’ 운영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대·자·보 도시광주’를 선언하고 교통정책 방향을 기존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자·보 도시는 광주G-패스를 시



22일 오후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열린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행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에리 기자

으로 청춘 빛포차 광장, 광천권역 교통 대책 등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2023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과 함

께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여기에 레저를 넘어선 자전거 일상화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자

전거 전용도로’, ‘광주천 자전거도로’, ‘첨단지구 일대 전국 최초 자전거 생활권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는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행사에 앞서 ‘지역과 경제를 살리는 차 없는 거리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광주 10여곳에서 시행한 ‘차 없는 거리’ 경제 효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대·자·보 도시 전환의 환경적 효과, 차 없는 거리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동차로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춘 빛포차 광장’에 대해 광주시가 불법 포장마차 거리를 예산·행정력을 투입해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청춘 빛포차 광장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불법 포장마차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상인들은 생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장 합법화는 어렵다는 입장인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변은진 기자

## 행정체제 개편안 권고...광주·전남도 통합 고려 대상

행안부 민간자문위 제시 “광역시·도 통합 수도권 집중 극복”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에 통합이 권고됐다.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에는 그간 통합 움직임을 이어온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87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첫 번째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대상 지역으로는 현재 시·도 간 통합이 추진돼온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꼽았다. 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 이후에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광역-기초’로 된 2계층의 자치체계를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인구가 급감한 시·군·구 간 통합도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래위는 인구감소 시·군 통합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

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향후 시·군·구 통합을 위해 검토할 만한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23년 ‘메가시티’ 논란을 낳았던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 대도시 인접 시·군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가 포함됐다. 미래위는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2단계 자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 인구과소 시·군의 행정시·군 전환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순천성가롤로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7억5천만원 투입...24시간 전문의 상주·집중 치료시설

순천성가롤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았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

되도록 사업 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 논리를 개발, 적극 대응한 결과다. 심뇌혈관질환은 도내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발병 후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지정으로 전남 동부권 도민의 심뇌혈관질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성가롤로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3년간 총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해 심뇌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24시간 전문의 상주하며 심뇌혈관 질환자 365일 응급 시술·수술, 퇴원환자 예방 관리교육 등을 담당한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요 시 신속한 이송으로 치료·전원을 아우르는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시원 기자

## 전남도, 상반기 8천555억 조기집행

공사·용역·물품 1조1천757억 발주계획 공개

전남도는 22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2025년 공사·용역·물품 사업 발주계획을 도 누리집(회계과 자료실)과 조달청(나라장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발주 예정 사업 규모는 공사 9천945억원, 용역 1천507억원, 물품 305억원으로 총 1조1천75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천130억원보다 2천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구암천 등 하천재해예방 19건 5천244억원, 함평읍다천지구 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건 762억원, 광양청 세종산단 조성 1천144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발주하는 사업의 73%인 8천55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22개 시·군의 사업 발주 규모는 지난해(3조444억원)보다 2천427억원 증가한 1만1천964건, 3조2천471억원이다. 전남도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각종 입찰 시 지역제한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공사 입찰 시 지역업체 49% 이상을 공동도급도록 하는 한편, 공사 하도

급 시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품 구매 시 전남 생산업체 우선 구매와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가 오는 2월1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비대면 접수를 시작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등 비대면 접수는 2월 한달간 이뤄진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로 농촌 거주와 영농종사가 3년 이상 등 추가적으로 소규모 요건에 맞는 농가에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양시원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